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분야 IT 보안사고 및 시사점

- 현대캐피탈은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농협은 전산장애로 일부 업무가 마비되는 등 금융분야 IT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함.
 - 4월 8일 약 42만명에 이르는 현대캐피탈의 고객신용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검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.
 -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아직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,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있더라도 불법대출과 같은 금전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이 배상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.
 - 4월 12일 농협에서 전산장애로 인터넷 뱅킹을 비롯한 폰뱅킹, 현금자동인출기(ATM) 등 전산망을 통한 서비스 이용 일체가 제한되는 사고가 발생함.
 - 가동 중지됐던 업무의 대부분이 복구됐고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나 이런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됨.
 - 농협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고 경제적·물질적 피해의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보상을 해 줄 방침이나 피해 보상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- 금융당국은 연이은 금융분야 IT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‘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’를 구성하여 금융회사 IT 보안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.
 -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IT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고객정보 해킹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며 고객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구함.
 - 모든 금융회사의 IT 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며, 금융당국의 IT 보안 조직 강화와 인력 전문성 제고를 추진함.
 -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IT 보안 관련 법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전자금융거래 보안과 관련한 역할의 정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.

(금융회사 IT 보안 강화 TF 추진계획 등, 금감원 등, 4/15)